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3월

선교편지 제 118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2월달을 보냈습니다. 주중에 무려 열 번에 걸쳐 아팔라야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년 별, 반별로 디고스 예일 교회를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500여명의 전교생 가운데,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제외한 390여명의 학생들이 30~70명으로 나뉘어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일 신앙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이 일을 위하여 아팔라야 교장 선생님은 물론이고, 10여명의 인솔 교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과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오전 7시 30분에 학생들을 지프니에 태우고 디고스 예일 교회로 출발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각하게 하고, 의견을 나누고, 마침내 믿고 결단하게 하는 실로 임무가 막중한 신앙 집회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4명의 현지 교역자들이 주제별로 분담하여 학생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즐겁게 찬양을 가르치고, 2 시간의 현지 언어로 된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받은 은혜와 도전을 나누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복음 앞에 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가지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루를 보낸 학생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마치 소풍을 온 것처럼 하루를 즐겁게 보낸 학생들도 많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학생들이 카톨릭 교회와 차이를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교가 카톨릭이고, 거의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카톨릭 미사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신앙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는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기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할 때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영화한 소위 '예수 영화'는 비록 오래 된 영화이지만, 그 명성대로 학생들이 집중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2월 한달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병행하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저희 사역팀이 아팔라야 고등학교를 찾아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한사람의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도 교역자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헌신된 주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 역할을 다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신앙 집회를 통해서 아팔라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 디고스예일교회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여 큰 힘이 되어 준 교우들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 분기마다 학생들을 위한 신앙 집회를 디고스예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5월 집회를 위해서 좀 더 치밀하고 내실있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하고 (눅 4:18)





오래전에 종종 사용했던 말 중에 '칠흑처럼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칠을 하다'라고 말할 때의 그 '칠하다'와 검은 흑의 '흑(黑)'자를 연결하여 마치 검은 칠을 한 것 처럼 매우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pitch black'이라는 말이 있는데, 타고 남은 잿가루처럼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밤은 보통 오후 5시 30분경부터 해가 지기 시작해서, 오후 6시경이 되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온 세상이 'pitch black'으로 되고 맙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물론이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바로 눈 앞인데도 어둠으로 인하여 식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야간에 운전 할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여 낯선 길을 운전해야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 생활이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운전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저녁이 되면 선교지 현지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 납니다. 아직도 물과 전기를 마을 공동 단위로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집마다 또는 방마다 전기를 환하게 켜놓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두움으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그야말로 서로가 식별이 될 정도의 밝기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즐겁게 TV를 보는 것이 그들의 평화로운 저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디고스에 일교회는 금년부터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에 '셀 (Cell)' 그룹별 '성경 공부과 기도 모임'을 각 가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두움으로 인하여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이기 쉽도록 마을 중심으로 셀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저녁 시간에 어느 한 가정에서 셀 그룹으로 모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식구들이 좁은 단칸방에 살고 있는 까닭에 셀그룹에 속한 10여명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들어 가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집 밖의 마당에 의자를 놓고, 전기를 끌어다가 서로 얼굴이 식별이 되는 가운데 셀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매주 모이는 셀그룹 예배와 성경공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점점 더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의자를 준비해야 하고, 전기선을 끌어서 밖에 설치를 해야하고, 또한 간단한 간식도 준비해야 하는 쉽지않은 일인데도, 교인들 가정마다 본인의 집에서 모이기를 훨씬 더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한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지만,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을 알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셀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도 나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학사역에 속한 학생 중에서 '피취' 가정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피취'는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던 학생이었는데, 장학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세례까지 받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전부터 '피취'를 통하여 피취의 남동생과 어머니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였는데, 금년에 집사로 임명을 받은 피취 어머니의 열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전도에 힘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취 어머니의 열심과는 달리 다른 식구들은 피취 어머니의 간청으로 교회에 몇번 출석을 하다가는 발길을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시작한 셀 그룹 성경공부를 통해서 피취 어머니는 가족들의 전도에 더욱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피취 어머니의 간청에 의하여 교회에 아직 출석을 하지 않는 피취의 대가족만을 위해서 두 개의 셀 그룹이 조직이 되어, 현지 교역자와 교인들이 매주 피취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공부와 예배를 통하여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병약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취의 할아버지는 매주 셀그룹 모임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곳에 4년여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이 넘쳐 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 37:5)**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교회의 부흥과 아팔라야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